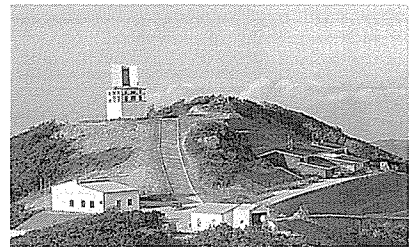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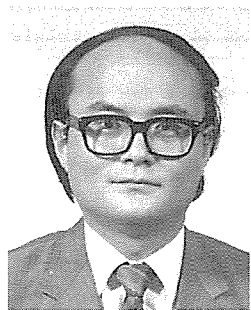
우 리나라와 같은 고대 농경국가에 서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때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 통치자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역법(曆法)을 연구하고 천문현상을 관측 예보하는 일은 국가의 보호와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의 조상들은 삼국시대로부터 근세 조선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자세



▲ 경북 영천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1.8m 반사망원경과 태양플레어 망원경을 갖춘 보현산 천문대.

65년 창립 ... 회원 4백60여명 한국천문학회

1965년 30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한국천문학회는 현재 회원이 4백60명으로 늘어났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만 60여명이나 된다. 특히 작년엔 1AU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열어 2백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매년 봄·가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姜用熙

(한국천문학회 회장/경북대 교수)

한 천문 관측기록을 남기고 있다. 특히 고려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에서 수행한 천변지이(天變地異)에 관련된 관측기록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세계적인 과학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자랑스런 천문관측의 전통은 일제의 침략과 함께 그 맥이 끊겼다. 인위적으로 끊긴 전통의 맥을 다시 잇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광복 후 근 30년만인 197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적 천문연구기관인 국립천문대가 발족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천문학은 천문현상의 관측을 통하여 우주에서 일어나는 제반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연법칙을 밝혀내는 순수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최근에는 획기적인 관측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육안으로 탐지되지 않는 전파와 자외선, 감마선 또는 중력파동을 통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구궤도에 설치된 우주망원경을 이용

하여 지구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관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양계 내의 천체에 대해서는 우주선을 이용한 탐사활동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천문학은 21세기의 과학기술문명을 이끄는 선도적인 과학분야라고 할 수 있다.

초대 회장 현정준교수

〈연혁 및 현황〉 한국천문학회는 1965년 3월21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시발로, 우리나라의 현대천문학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로서는 서울대에서 천문학 전공의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성균관대학에 우주물리학 과가 신설된 상태였다. 따라서 창립회원은 천문학자 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또는 기상학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초대 회장으로는 서울대학교의 현정준교수가 선출되어 1967년까지 3년동안 학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학회는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를 통하여 회원의 확보와 학회 지원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창립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립천문대 건설위원회의 노력의 결실로써 1974년 9월에는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으로 국립천문대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1976년에는 소

백산 천체관측소의 개설과 더불어 현대적 관측기기를 이용한 독자적인 우주관측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립천문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로 개칭되어, 구경 1.8미터의 광학망원경과 14미터 전파망원경을 보유한 현대적인 천문대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대학에서의 천문학교육은 서울대에 이어 1960년대 중반에 연세대에 천문학 전공과정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 말에 일기 시작한 천문 우주과학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증대에 힘입어 4개 대학에 천문학 또는 우주과학 전공과정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전국 6개 대학에 천문학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또한 사범대학의 지구과학 교육 전공과정에서 천문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창립초기 30명 내외의 회원수는 1997년 현재는 4백6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회원중 박사학위 보유자는 1980년대 초까지 10명 이내였으나, 현재는 6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매년 봄·가을 학술발표회

〈학회활동〉 학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 12인의 평의원, 2인의 감사 그리고 총무, 재무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분과위원회로서는 편집, 교육, 우주관측, 그리고 국제천문연맹(IAU) 한국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3종의 학회지를 발간한다. 영문 학회지인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는 현재 연 2회 발간되는데, 세계적인 문헌색인 잡지인 「Abstracts of Astronomy and Astrophysics (Springer Verlag 출판)」에 인용, 소개되고 있다. 기타

의 국문 또는 영문 논문을 실는 「천문학 논총」과 학술발표회의 초록 및 학회소식을 게재하는 「천문학 회보」를 각각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는 본 학회가 IAU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24개국에서 2백97명이 참석, 2백27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학술발표회를 봄과 가을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봄 대회는 정기총회를 겸하고 있다. 그밖의 학회 활동으로는 학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평의원회의가 수시로 열리며, 학회 간행물을 심의하는 편집위원회,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천문교육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교육분과위원회, 그리고 국가우주계획의 과학위성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우주관측 및 탐사에 관심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최근에 설립된 우주관측분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년 9월에는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을 기념하여 세종시대의 천문학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연회비와 학회지 게재료, 그리고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보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다.

〈과제와 전망〉 천문학은 학문적 순수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산업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천체와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인간이 우주의 일원인 지구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굳이 선진국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국가적 연구사업으로서 천문

우주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형 연구프로젝트로서 천문분야의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쏟고 있다.

천문자료연구센터 건립 노력

한편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나 경제력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천문 우주과학에 대한 연구 투자 규모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관측장비를 살펴보면, 국내 최대인 구경 1.8m 광학망원경은 천체분광이 가능한 최소 규모로서,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심천탐사(深天探査, deep sky survey)에 참여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장비이다. 전파 관측장비 또한 높은 분해능의 관측이 가능한 VLBI를 아직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의 수용능력에서 볼 때,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기관인 천문대는 50명 미만의 연구원을 보유한 소규모의 연구소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학회는 연구인력 수용능력의 확대와 연구장비의 확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의 소규모 투자예산을 한데 묶어서 공동으로 운용되는 대학연합 천문대의 설립과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비롯한 막대한 양의 천문관측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문자료센터의 건립을 위해 학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지상 및 우주관측을 통한 국제적 연구활동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천문학도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㉔